돈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사무엘상 7:1~17)

1.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돈의 노예에서 하나님 노예로>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돈의 노예에서 하나님 노예로'

사무엘의 사역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돈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노예로 바꿈으로서, 하나님 초상집 같았던 상황에서 하나님 잔칫집 분위기로 바꾸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1991년에 11월 11일자 아시아판 뉴스위크지에 이화여대의 정문사진이 게재됩니다. 정문에서 걸어 나오는 네댓 명의 이대생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사진 밑에 "Slaves to Money(돈의 노예)"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뉴스위크지의 기자 브래들리 마틴의 기사로서 "너무 일찍 부자가

됐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의 과소비풍조를 꼬집는 내용이었는데 기사에 실린 이대생들의 상황을 보니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정장차림을 하고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돈의 노예'라는 제목을 달기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독일의 대학생들이 정장을 입고 학교에 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졸업 파티 때에나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을 뿐이기 때문에, 브래들리 마틴의 눈에는 이러한 정장 차림이 과소비의 모델로 보였던 것인데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화여대 일백 년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분개해서 대자보를 붙이고 항의서한을 보내고 합당한 변명이 없으면 법정대응까지도 하겠다며 노발대발했던 내용이 1991년 11월 14일 우리나라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브래들리 마틴은 직접 이대생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대학을 갓 졸업한 한 여성이 한국 신문에 쓴 칼럼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이 여성이 쓴 칼럼에서 "출세나 벼락부자 과소비 등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남자들이 결혼할 때에는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세태를 통탄하였는데 이런 내용에 입각해서 '너무 일찍 부자가 되었다'는 제목으로 과소비 풍조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요즘은 돈의 노예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할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돈의 노예 상태를 아무도 통탄조차하지 않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점에 나가면 별의별 말을 하면서 독서를 권장하지만 책의 십중팔구는 '어떻게 돈을 잘 버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개탄할 상태였는데 이제는 정상입니다. "오천만 원으로 십억 벌기"라는 책은 예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획기적이고 기발하고 신나는 일이지 왜 부끄럽게 여겨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은 215회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는 218회 나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2,084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기독교 서적도 "깨끗한 부자 어떻게 될 것이냐, 왕의 재정" 등의 책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의 모토는 "지금 선택하라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되고 신앙의 방해가 된다고 해서 금기시하고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주자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정원칙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로 나타난 열매에 관한 이야기일 뿐, 돈 자체를 관심거리로 채택하고 그 돈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

가를 가르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지면 돈에 대한 입장정리는 결과이자 부수적인 것으로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084회의 돈에 대한 기록의 밑바탕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의 권고가 깔려있을 뿐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될 것인지 돈의 주인이 될 것인지 결정하라'는 말조차도 우려스러운 말입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돈의 노예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자며 청부론을 말하거나 왕의 재정 같은 것을 주제로 삼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된 상태에 다른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기랏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십년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2절에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는데 이 '사모하니라'는 말이 참 오해를 자아내는 번역입니다. '나하'라는 히브리어로 '애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은 '여호와가 죽은 것 같이 된 상태를 애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서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가 죽었다'고 애도하는 것인데 선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초상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초상집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죽은 초상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엘은 3절에 "…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도 적용하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나 목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과 특히 선민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괴로움은 섬김의 문제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노예와 속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은 그 신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들이 가리키는 풍요와 다산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6: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의지해서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로 알아서 돈을 벌려고 추구하는데 돈의 노예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는 것은 돈을 섬기는 것이고, 돈을 섬기는 것은 내게 기

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데 '여호와만을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선민들 가운데 계심의 상징입니다. 법궤가 돌아온 지 이십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의 괴로움을 중단시킬 수 없었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자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상징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은 섬김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섬기는데 돈이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의 구조는 지금 블레셋을 말하지만 정치문제나 외교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문제가 내 마음의 고통으로 나타나는데 섬김의 문제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이 벌리지 않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블레셋으로 상징되고 돈을 벌려는 것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로 상징됩니다. 지금 내게 재정문제, 자녀문제, 건강문제, 인간관계문제, 승진문제 등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섬김의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애타게 찾는 것은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여호와가 살아 움직이면서 내게 돈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도 죽었구나! 하나님도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슬픔과 탄식의 소리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내용입니다.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라고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라는 말은 상징적 표현인데 내용적으로 말하면 '돈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상태로부터 하나님의 노예상태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돈 문제에 헐떡거리고 있다가 돈이 생겨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돈 문제의 헐떡거림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이 5~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샤파크'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심정을 통하였을 뿐이라"고 한 것과 같은데 아들로 말미암은 문제가 마음에 엉겨 붙은 것을 쏟아 낸 것입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 한 주먹 눈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에 돈 문제가 들어오면 엉겨 붙는데 그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스다롯과 바알 숭배가 돈 숭배입니다. 돈에 엉겨 붙은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밥 먹고 했던 일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형통할 것인가'라는 돈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올바른 재정원칙을 찾아내서 그 원칙대로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것은 여전히 돈의 노예상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돈으로 안심하려는 마음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발적인 결심을 표현한 것이 여호와께 물을 길어 붓는 것이었습니다.
진주 속에 돌이 들어가면 고통으로 인해 진주가 되어 나오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돈, 건강, 자녀, 승진 등의 문제가 들어오면 마음에 엉겨 붙으면서 암 덩어리가 되고 기쁨과 평강이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잠깐 평강이 있는 듯해도 하루를 못 갑니다. 들어온 것들이 암이 되어서 블레셋의 침략처럼 못 살게 만듭니다. 아스다롯과 바알숭배를 포기하는 결심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물을 붓고 금식을 함으로써 스스로 체감하면서 결심을 굳건히 하는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서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완결시키게 됩니다.
돈을 마음에 담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젖 먹는 어린양이 번제단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양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청부론이든 왕의 재정이든 어떤 식으로 미화하거나 포장된 돈에 대한 관심일지라도 돈을 주제로 삼는 나의 인격 전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돈은 나의 관심사가 아닌 하나님의 과제가 됩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주신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시든 그것은 원칙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할 바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이나 재정지출 등은 십자가에서 마음에 엉겨 붙은 암 덩어리를 쏟아내고, 금식으로 표현되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돈과 건강과 나의 모든 관심사들의 주인으로 뜻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돈 문제를 해결하실 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로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평강을 이룬 뒤에도 계속해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속에 머무는 것이 참 구원입니다. 우리는 돈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했던 전형적인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돈을 관장하신다고 믿으며 돈을 벌기 위해 율법을 지켰습니다. 청부론이나 왕의 재정 같은 이야기들이 현대판 바리새인과 율법주의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없음을 우려해서 하나님만을 벌려고 해야 합니다. 이 세상 것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암 덩어리임을 알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만이 참 구원이요, 바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노예로 바뀌는 사무엘의 사역의 결과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말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내 마음에 달라붙는 돈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해결됨으로서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